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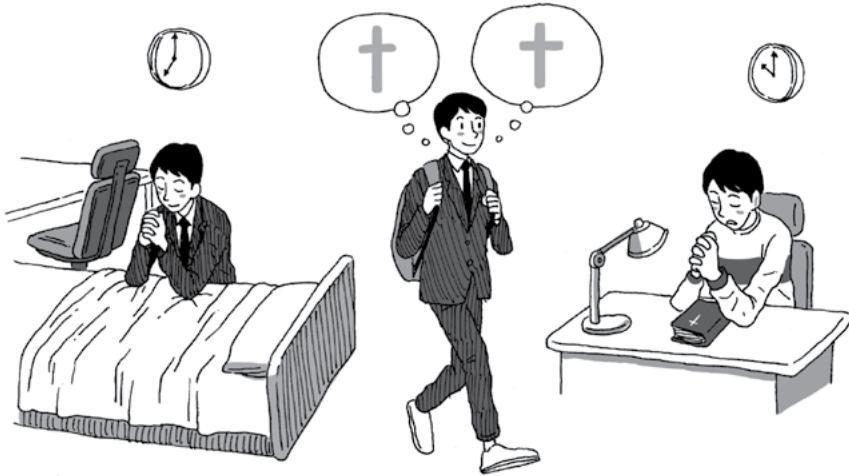
##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눅 11:1~10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62장 (기도할 수 있는데)



1.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 신뢰와 확신, 평강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2. 실생활에서 은밀하고 솔직하며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 ]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 ]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 ]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 6:9~13)



## 을 이해하기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호흡이자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더욱 가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며 자기의 허물을 쉽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기도 내용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성품에 대한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생활 중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찬양과 감사를 드린 후에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기도 부탁을 받은 내용도 이때에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기적으로 간구한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럼 기도는 언제,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습관으로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또 마무리하는 저녁에는 필수적입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공중기도 외에는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께만 아뢰 수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과말씀 정리

-----

-----

-----

-----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 4:2)

Continue earnestly in prayer, being vigilant in it with thanksgiving (Col 4:2)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이해하기’에서 찾아서 다섯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마 6:9~13).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2 나는 하루 중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적어 봅시다(단 6:10, 눅 22:39).

구분	언제	시간의 양	어디서	어떻게
월				
화				
수				
목				
금				
토				

- 3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기도에 힘써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겔 36:37, 골 4:2).

- 4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경험(그 때의 상황과 기도 내용)과 응답을 정리해 보고 교제해 봅시다(약 5:13~16).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66:18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of the day.

의

잠 28:9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of the day.

화

겔 36:37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of the day.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of the day.

↑

단 6:10

---

---

---

---

---

---

---

---

↓

마 6:33

---

---

---

---

---

---

---

---

↓

눅 22:39

---

---

---

---

---

---

---

---

↓

눅 22:44

---

---

---

---

---

---

---

---



## 간절한 기도

어느 날 루터가 저녁 식사를 하려는데 그의 강아지가 발 밑에 앉아서 그가 막 먹으려는 빵과 고기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강아지는 ‘주인이 언제쯤 저걸 내게 줄까?’ 하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하려던 루터가 강아지와 눈길이 마주쳤을 때 문득 그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아지가 고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 강아지는 한 조각의 고기에만 몰두해서 다른 것은 무엇하나 생각지도, 희망하지도 않거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갈망하고 있는지, 루터가 느낀 그것을 우리도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시험을 당해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죄로부터 멀어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롬 6:1~2)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육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찌어다 하셨느니라 (벧전 1:14~16)

만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면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 받은 후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아버지와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갈 염려는 없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죄가 자백만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질이 나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합니다. 또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질히 징계하십니다. 이는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 12:7~8)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히 12:10)

징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직접적으로 자신의 신변에 어떤 일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평안이 깨지는 것이 징계이므로 이런 징계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징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죄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하나님이 참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혹시나 사생자 즉, 구원 받지 못한 자는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